참고문헌

원전 및 사전

『대순전경』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향토문화전자대전』

국문자료

김홍철 외. 1997. 『한국 신종교실태조사 보고서(韓國新宗教實態調査 報告書)』.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김찬흡 편. 2005. 『제주 항일인사 실기』. 북제주군 · 북제주문화원.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5. 『단군성주교 관련자료(원문)』.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_____. 2015. 『단군성주교 관련자료』.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이강오. 1992. 『한국신흥종교총람』. 大興企劃.

제주학회. 2002, 『제주도연구』22, 제주연구회.

조성윤. 2002.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_____. 2004. 「濟州地域의 宗教文化」. 『韓國宗教』 第28輯.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학회 편. 1985.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韓國新宗教實態調査報告書)』. 한국종교학회

朝鮮總督府. 1922. 『朝鮮法令便覽』(上卷).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홍범초. 1988. 『범증산교사』. 범증산교연구원

일문자료

平山洋. 1992. 「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 『国家と宗教』. 源了圓, 玉懸博之 編. 思文閣出版.

기타

「광주지방법원형사부 판결문」(1940.12.04. M/F번호 00960644)

『한국종교』 제39집
2016, 27-55쪽.

'보천교의 반일성(反日性) 연구'를 위한 연구사적 검토

안후상 이사
한국신종교학회

국문초록

이 글은 '보천교의 반일성'을 연구하기 위한 시론이자 연구사 정리다. 보천교는 기본적으로 반일성을 갖는다. 일제강점기에 보천교는 일제의 수많은 탄압을 받았고 그 탄압으로 보천교는 해체되었다. 그렇다면 일제는 왜 보천교를 탄압했을까? 일제가 보천교를 사이비 종교라서 탄압하였을까? 아니면 식민통치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탄압하였을까? 일제가 보천교를 탄압하면서 남긴 수많은 자료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보천교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자금을 모았다."

이 글은 보천교의 연구 현황을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대체의 관련 연구는 보천교의 반일성, 더 나아가 보천교의 민족성까지 언급하였다. 하지만 근래에 보천교의 민족성을 부인하는 글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보천교 연구의 최대 쟁점은 '보천교의 민족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천교의 반일성'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에서 뿐 아니라, 일제가 남긴 수많은 자료에서 보천교의 반일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향후의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보천교의 반일성을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을 시대 순으로 구성하면서, 그 특징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이러한 예시가 향후의 관련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참신한 착안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피력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식민지 한국은 '전통'과 '문명'이라는 명분이 혼재돼 있었다. 당시의 전통이란 왕조시대에 지키고자 한 '정(正)'보다는 배척하고자 한 '사(邪)'에 가까웠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언론에서는 문명의 저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천교를 계몽의 대상이라 하였지만, 당시에 적지 않은 민중은 보천교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계몽의 대상으로 지목된 그들, 즉 민중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의 관련 연구는 보천교운동에 참여한 그들의 언어로써 그들의 생각을 추적하는 작업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보천교, 선도교, 강증산, 차월곡, 지상선경, 문명개화, 일본제국주의, 민족성, 반일성, 연구사

Ⅰ. 들어가는 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민간신앙은 동학(東學)과 같은 고등종교로의 탈바꿈을 위해 노력하였다.[1] 정감록(鄭鑑錄)의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동학은 1905년에 교명을 천도교(天道敎)라 하고 교단의 노선을 문명개화 쪽으로 틀었다.[2] 잡지를 발행하고 사회단체를 조직하는 등 사회운동을 전개한 동학의 원래 기반은 농민이었다. 그러나 천도교로 개칭하고서 벌인 동학의 사회운동에는 농민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20세기 초에 동학과 마찬가지로 농민을 기반으로 한 보천교(普天敎)라는 종교가 등장하였다.[3] 보천교

1) 강만길. 2007.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비. 228쪽.

2) 김정인. 2009.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48쪽.

3) 보천교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게 된 것은 1922년 서울에 '보천교경성진정원'이라는 간판이 내걸리면서다. 그 이전에는 태을교 · 선도교 · 훔치교 등이라 불렀다. 당시 교단에서 밝힌 교명 '보천교'의 의미는 "普는廣也며大也이오天은萬物을覆하나私가無함으로갈옷普天이라 하니라"였다.(《普天敎報》 창간호. 1922. 7. 보천교진정원. 43쪽) 본고는 앞의 여러 개의 이름 대신에 '보천교'로 통칭한다.

역시 정감록이나 각종 비결의 정서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 성장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천도교에 버금갔을 것으로 추정한다.[4] 보천교는 일제강점기 내내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렸다. 1920년대의 언론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보천교를 다루었다.[5] 당시의 신문은 보천교의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6] 하지만 대개는 보천교를 '우매한 미신 사교'라 하였다.[7] 특히 당시 지식인들[8]의 눈에는 보천교는 학문도 종교도 아닌, 그저 정감록이나 비결에 의지하는 미신(迷信)이자 일깨워야할 미몽(迷夢)이었다. 보천교가 언론에만 오르내렸던 것은 아니며, 일제(日帝)[9] 도 보천교를 거론하였다. 검찰과 경찰의 기록이나 재판 관련 기록에 의하면 보천교는 식민통치에 방해되는 불경스런 단체이거나 또는 유사종교(類似宗敎)였다.[10] 당시의 언론이나 일제가 바라다 본 보천교는 대체로 '불경스런 단체'이면서 '미신사교(迷信邪敎)'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천교=미신사교'라는 등식은 당시의 모

4) "자칭 600만 교인" 또는 "수백만 교인" 등의 표현이 식민통치기관의 자료에 나와 있을 정도로 보천교는 한때 급성장하였다. 村山智順의 『朝鮮の類似宗敎』(1935. 朝鮮總督府中樞院)에 나타난 보천교의 연도별 교세는 1921년 26,419명, 1922년 25,132명, 1925년 35,106명 등이다.(531-537쪽) 趙景達은 그의 글「植民地朝鮮における新興宗敎の展開と民衆-普天敎の抗日と親日(下)」(2001. 『思想』2001.3. 岩波書店)에서『朝鮮の類似宗敎』의 교세 관련 통계는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경찰부의 조사에 의한 것이라며, 조사 방법으로는 심문에 의한 것, 경찰이 밀정을 파견해서 조사한 것 등이 있는데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당시 신종교 교단은 다분히 비밀 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진상이 은폐되기가 쉽다고 조경달은 말했다.(138쪽) 보천교가 강제 해산 당하던 1930년대 중반에 보천교 본소를 수색하던 경찰부 고등과장이 보천교 교세를 5만호로 추정하였다. 1호당 가족이 5명이라고 할 때 1930년대 중반의 보천교인은 대략 25만 명에 이른다고 조경달은 추정했다.(조경달. 2009.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340-341쪽)

5) 보천교 관련 기사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등을 비롯하여 《개벽》, 《삼천리》, 《동광》 등과 일본에서 발간한 《朝鮮公論》 등 당시 대부분의 신문과 잡지에서 볼 수 있다.

6) '獨立運動하는 太乙敎信者, 오는 21일에 2심 判決' 《조선일보》 1921.2.19. ; '太乙敎人의 獨立運動' 《동아일보》 1921.8.6.

7) '荒唐無稽한 妄說로 詐欺한 普天敎徒...' 《매일신보》 1924.7.13.

8) 본고에서의 '지식인'이란 西歐 교육을 받은, 또는 그 영향을 받은 지식인이다.

9) 본고에서의 '일제'는 일본제국주의 권력을 말한다.

10) 『暴徒史編輯資料高等警察要史』(1934. 慶尙北道警察部) ; 「朝鮮重大思想事件經過表」(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續刊)》) ; 『朝鮮の宗敎』(古川文太郎. 1921. 朝鮮印刷株式會社) ; 『管內最近の狀況說明資料(全北)-普天敎一般』(1926);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八-十三年』(朝鮮總督府 編. 1933-1938. 朝鮮總督府警務局) ; 『朝鮮の類似宗敎』(村山智順. 1935. 朝鮮總督府中樞院) ; 『朝鮮の占卜と豫言』(村山智順. 1933. 朝鮮總督府中樞院) 등은 보천교를 '유사종교'로 인식하였다.

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농민층과 도시민 일부가 보천교의 조직운동[11] 에 동참하였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식인 일부도 합류하였다.

일제는 농민들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보천교를 경계하고 탄압하였다. 식민통치의 전 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교인이 수배를 받거나 검거 당하였다. 일종의 일제의 보천교 탄압인데, 그런데 탄압의 배경이 구체적이지가 않다. 예컨대 탄압의 원인이 식민통치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신사교이기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는 대체로 보천교가 식민통치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다고 하였다. 식민통치에 위협이 되었다면, 그 위협의 실상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쨌든 불경스런 단체이기 때문에 보천교가 탄압을 받았다면 앞의 '불경스러움'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일제가 보천교를 경계하거나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제에 대한 보천교의 '불경스러움'을 '반일(反日)'로 이해하였다. 예컨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보천교의 주의 · 주장이나 목표인 '후천선경의 신정부 건설'은 기본적으로 반일성(反日性)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12]

본고는 '보천교의 반일성'의 실체는 물론 이를 소재로 한 연구의 적합성까지도 관련 연구사를 통해서 점검할 것이다. 보천교의 반일성 연구를 하게 된다면 연구 관련 연구사나 쟁점, 자료의 현황이나 자료가 갖는 한계, 그리고 연구의 방향성 등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보천교의 반일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론(試論)에 가깝다. 즉 후천선경의 신정부 건설이 실제로 식민통치에 위협이 되었는지, 또는 보천교의 반일이 종교적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행동이 수반된 반일인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시론에 가까운 연구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 연구 현황이나 최대 쟁점 등을 정리하고, 이어 연구의 방향성이 담긴 예시(豫示)를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사적 검토나 연구의 방향성의 제시는 향후 관련 연구의 심화에 이어,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 차월곡은 24방주제와 60방주제라는 비밀 결사적 조직을 통해서 전국에서 민중을 조직하였다.

12) 대표적인 연구가 노길명의「日帝下의 甑山教運動-普天教를 중심으로 한 序說的 硏究-」(1984.『崇山朴吉眞博士古稀記念論集 韓國近代宗教思想史』. 원광대출판국)이다. 앞의 글 7쪽에서 노길명은 보천교의 천자등극설에는 '반일성'과 '민족성'이 함께 들어 있다고 하였다. 참고로 後天仙境이란 갈등과 원한의 선천시대가 아닌 相生이 지배하는 후천의 이상사회를 말한다.

II. 연구사 정리와 연구의 쟁점

1945년 광복된 한국사회의 보천교에 대한 관심은 일순간 수그러들었다. 갑작스럽게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이유는 보천교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보천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감시나 탄압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사회는 보천교를 여전히 사이비 종교로 치부하였다. 그런 와중에 이강오의 「보천교(普天敎)」가 발표되었다. 이후에 관련 연구는 이어졌지만 이는 신종교 연구의 일환일 뿐, 보천교는 학계의 관심 밖에 있었다.

필자는 단일 주제로서의 '보천교'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1990년대에 필자는 「일제하 보천교운동-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상)-」을 시작으로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등을 연이어 발표하였으나, 관련 학계의 관심은 저조하였다. 1999년에 한국신종교학회가 창립되고 학술지『신종교연구』가 발간되면서 보천교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일었다. 따라서 본란에서는 학계의 관심이 일기 시작한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관련 연구사를 정리하겠다.

1. 2000년 이전의 연구

보천교는 1922년 이전에 비밀 결사적 조직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1922년 이후의 보천교는 일제의 탄압과 회유로 인하여 공개적인 조직운동으로 전환하였으나 탄압은 피하지 못했다. 차월곡이 타계한 1936년 이후의 보천교 잔여세력은 또다시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으로 전환하였지만, 이 역시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보천교의 조직운동은 차월곡의 타계로 막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광복이 돼서야 그 조직운동은 멈췄다.

1950, 60년대의 한국사회는 보천교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관심이 있다 하여도

그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13] 보천교(普天敎) 또는 신종교(新宗敎)[14] 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 발표된 최초의 연구는 이강오의「보천교」(1966)다.[15] 앞의 글 제1장에는 '고씨(高氏) 부인의 태을교(太乙敎) 창립'이라든가 '차월곡(車月谷)의 교권 장악과 교체 조직' 등 보천교의 초창기 모습이 잘 정리돼 있다. 제2장에는 차월곡의 제위 등극설이, 제3장에는 보천교의 친일 행위가 정리돼 있다. 이외, 제4장 교운의 침체상, 제5장 교단의 분열, 제6장 교리, 제7장 교단의 운영, 부첨(附添)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강오는 앞의 글에서 보천교는 기본적으로 사교이며, 친일을 했던 종교단체라고 언급하였다.

1969년에 이강오에 이은 유병덕도 한국의 신종교를 천착하면서 보천교를 언급하였다. 이강오와는 달리 유병덕은 보천교 뿐 아니라 신종교 전반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다보았다.[16] 그러나 그 용어는 '신흥종교'였고 보천교는 신흥종교 가운데 하나였다. 이후의 보천교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다가, 1980년대에 관련 연구기관의 '한국의 자생종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면서 재차 언급되기도 하였다.[17]

1980년대에는 앞의 실태조사 외에도 노길명의「일제하의 증산교운동-보천교를 중심으로 한 서설적 연구-」(1984)[18] 과 홍범초의「보천교 초기교단의 포교에 관한 연구」(1985)[19], 그리고 김홍철의「일제하 증산교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1988)[20], 김탁의「종교적 예언은 실현될 것인가-증산교를 중심으로-」(1988)[21] 등이 발표되었다.[22]

노길명은 이강오와는 달리 보천교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한 민족종교였으며, 그 조직 및 활동을 '증산종교운동' 또는 '보천교운동'이라고 일컬었다. 일제강점기의 보천교의 조직 및 그 활동을 '운동'으로 파악한 것이다. 더불어 보천교의 천자등극설에는 '민족성'과 '반일성'이 함께 들어 있다고 하였다. 홍범초는 초창기의 보천교의 포교가 성공했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1920년대《동아일보》의 관련 기사를 인용해 보천교가 당시에 '광복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김홍철은 강증산의 사상 속에 내포된 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여러 종단이나 종파, 특히 보천교의 민족운동 사례를 제시하였다. 김탁은 앞선 연구자들처럼 보천교를 '증산교'라고 표기했지만 일제의 보천교 탄압의 배경에는 '보천교의 예언'이 있었다며, 그 예언이 갖는 상징성을 묘파하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강증산의 사상이나 영향 관계 속에서 보천교를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강증산의 사상은 보천교의 조직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이 체계화한 것이다. 물론 보천교가 강증산으로부터 가능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보천교의 조직운동을 증산종교운동이나 증산교의 활동에 가두려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보천교운동이란 표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천교의 조직운동을 증산종교운동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자칫 운동의 본질을 흐릿하게 할 소지가

13) 1969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단속 대상인 '유사종교'의 행위를 ⅰ) 종교를 빙자해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행위, ⅱ) 금전을 갹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ⅲ) 국헌과 국법을 위배하고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ⅳ)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ⅴ) 반사회·반윤리적으로 포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였다. 보천교를 포함한 여타 신종교는 앞의 '유사종교'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의 기사와 더불어 취급하였다.(《경향신문》 1969.3.26.) 윤이흠은 광복 이후의 보천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일제의 보천교 탄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윤이흠 외. 1997.『日帝의 韓國 民族宗敎 抹殺策-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고려한림원).

14) 普天敎와 같은 자생종교들을 관련 학계에서는 '新宗敎'라 규정한다. 한국의 자생종교를 일제강점기에는 類似宗敎라 했고 광복 직후에는 新興宗敎라 하였다. 앞의 유사종교나 신흥종교에는 경멸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이유로 '신종교'라는 용어를 1980년대부터 사용하였다. 1979년에 편찬한『한국정신문화대백과사전』에서 신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1999년에 창립된 관련 학회의 이름이 '한국신종교학회'였다. 이외 민중종교나 민족종교 또는 민속종교 등의 용어가 있으나 이는 종교의 성향에 따른 세분화된 용어로, 본 연구에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 신종교를 사용한다. 오늘 날의 용어 '신종교'와는 다른 '신종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이정립이다. 이정립은 기성종교의 대안으로서의 단군 · 수운 · 증산의 3단 신앙 체계의 민족적 단일 종교 건설을 '신종교운동'이라 정의하였다.(이정립. 1950.『신종교운동』. 文星社. 28쪽)

15) 이강오. 1966.「普天敎-한국신흥종교자료편 제1부 증산교계 각론에서」.『전북대학교논문집』제8집. 전북대학교 ; 1992.『한국신흥종교총람』. 대흥기획.

16) 유병덕. 1969.「韓國 新興宗敎의 類似宗敎 規定에 關한 硏究」.『원광대학교논문집』4. 원광대학교. 앞의 글에서 유병덕은 일제강점기의 신종교 발흥 현상을 '민중종교 운동'으로 이해하였다.

17) 실태조사 결과로는『韓國의 宗敎』(1989. 문화공보부)와『韓國新宗敎實態調査報告書』(1997.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앞의 조사를 주도한 이들은 유병덕과 김홍철, 양은용 등이다. 이 외에도 보천교를 언급한 책으로는 노길명의『한국의 신흥종교』(1988. 가톨릭신문사)와『한국신흥종교』(1996. 경세원), 탁명환의『한국 신흥종교의 실상』(1991.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18) 노길명. 1984.「日帝下의 甑山敎運動-普天敎를 중심으로 한 序說的 硏究-」.『崇山朴吉眞博士古稀記念論集 韓國近代宗敎思想史』. 원광대출판국.

19) 홍범초. 1985.「普天敎 初期敎團의 布敎에 관한 연구」.『韓國宗敎』제10집. 원광대종교문제연구소 ; 1988.『범증산교사』. 도서출판 한누리.

20) 김홍철. 1988.「日帝下 甑山敎의 民族運動에 관한 연구」.『증산사상연구』제14집. 증산사상연구회.

21) 김탁. 1988.「宗敎的 豫言은 실현될 것인가-증산교를 중심으로」.『정문연대학원논문집』제1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국학대학원.

22) 이외에도 김용곤은「新興宗敎 聚落에 관한 연구-普天敎 發祥地 大興 마을을 중심으로-」(1989. 전북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를 통해서 보천교 본소가 있었던 정읍 대흥리라는 취락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지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도 일제강점기의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 또는 민족종교운동으로 바라다 본 글들이 발표되었다.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 또는 민족종교운동으로 바라다 본 이는 윤이흠과 강돈구, 그리고 필자이다. 강돈구는 그의 책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1992)[23]에서 보천교가 고천제에서 국호를 선포한 것은 차월곡의 교권 장악과 관련이 없으며, 고려시대 묘청(妙淸)이 서경에서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 특히 보천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의 입교 동기가 일본을 쫓아내고 조국의 광복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천교의 민족성을 부정하지 않았다.[24]

윤이흠은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1997)[25]에서 천도교와 대종교, 그리고 보천교 등은 민족종교이며, 민족적 성향이 다분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보천교운동을 천도교나 대종교처럼 민족적 문제에 직면하여 민족적 자기 각성의 종교적 표현으로 봤던 것이다. 앞의 책 「일제하 보천교 탄압 사례」부분을 맡아서 정리했던 필자는 일제에 위협이 될 만한 보천교의 행위들과 일제로부터 받은 탄압상 등이 담긴 당시의 자료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강증산의 영향 관계 속에서 보천교를 이해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자들과는 달리 필자는 보천교를 "강증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증산도문(甑山道門)의 뛰어난 조직가 차월곡(이름은 차경석)이 만든 조직 체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강증산이 강조한 "후천개벽(後天開闢) 시대의 상등국(上等國)이 될 조선의 전권(全權)"을 목표로 "후천선경의 신정부 건설운동"을 전개한 차월곡이 그 중심에 있다고도 하였다.[26]

필자는 또한「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1996)[27] 를 통해서 '보천교의 난'이라 불린 제주도 중문에서의 항일항쟁을 보천교의 조직과 불교계 일부, 그리고 제주도민이 일으킨 민중봉기로 파악하였다.[28] 더불어「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1998)[29] 에서는 보천교가 1920년대 초반의 실력양성운동에 뛰어든 방증을 제시하는 등[30], 1990년대에 필자는 보천교라는 단일한 주제의 글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보천교운동을 민족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더불어 '보천교 연구'라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시도하였다.[31]

2. 2000년 이후의 연구

1990년대 말에 한국신종교학회가 창립(1999)되었고 학회지 『신종교연구』(1999)가 발간되었다. 이후 『신종교연구』의 보천교 관련 글은 주로 황선명과 김재영, 그리고 필자가 발표하였다. 지역사의 하나로서 보천교가 연구된 것도 2000년대 초반이다. 특히 김재영은 「정읍농악과 신종교」(2002)[32]를 통해서 현 정읍 우도농악의 원류가 '보천교농악'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였다. 「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행방」(2001)[33]을 통해서는 보천교 해체 이후의 건축물의 이전 과정이나 그 소재 등을 추적, 정리하기도 하였다.[34] 이처럼 관련 학회의 창립과 학회지 발간으로 보천교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

23) 강돈구. 1992. 『韓國近代宗敎와 民族主義』. 집문당.
24) 위의 책. 133-134쪽.
25) 윤이흠 외. 1997. 『日帝의 韓國 民族宗敎 抹殺策-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고려한림원. 위의 책에서 필자는 「일제하 보천교 탄압사례」 부분을 맡아 정리하였다.
26) 필자. 1992. 「日帝下 普天敎運動-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上)」. 『남민』제4집. 서해문집 ; 1995. 「日帝下 普天敎運動-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下)」. 『남민』제5집. 서해문집 ;「보천교운동 연구」(1992. 성균관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안후상. 1996. 「濟州 法井寺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제15집. 서울대종교학연구회.
28) 안후상. 1995. 「戊午年 濟州法井寺 항일무장봉기 연구」. 『중문청년회의소 창립 20주년 해방 50주년기념 학술토론회, 戊午年 法井寺 抗日運動』. 중문청년회의소 ; 1996. 「濟州 法井寺 항일항쟁 연구」,『종교학연구』제15집. 서울대종교학연구회. 이후에 일각의 한국 근대불교사 전공자들은 1918년의 제주 법정사의 항일항쟁을 불교계가 주도한 항일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29) 안후상. 1998. 「普天敎와 物産奬勵運動」. 『한국민족운동연구』제19집.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편. 1998. 『한국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30) '보천교운동'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이는 노길명이다. 뒤이어 필자도 일제강점기에 신정부 건설을 도모하는 보천교의 조직운동을 '보천교운동'이라 하였다. 필자는 조선물산장려회의 초창기 기관지 《産業界》를 보천교에서 사실상 발간했으며, 물산장려회 발기인에 보천교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는 새로운 사실들을 들어 보천교의 조직운동(이하 보천교운동이라 함)을 민족운동 또는 민족종교운동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31) 필자는 보천교와 관련한 그간의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普天敎 硏究의 現況과 課題」(1998. 『한국종교사연구』제6집. 한국종교사학회)를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1990년대에「普天敎와 東學」(1998. 《황토현》 창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증산 강일순의 생애와 사상」(1997. 《문화저널》 통권106호. 전북문화저널사) ;「차경석의 생애와 사상」(1998. 《문화저널》 통권124호. 전북문화저널사) 등의 관련 잡문을 쓰기도 하였다.
32) 김재영. 2002. 「井邑農樂과 新宗敎」. 『한국종교사연구』제10집. 한국종교사학회.
33) 김재영. 2001. 「普天敎 本所 建築物의 行方」. 『신종교연구』제5집. 한국신종교학회.
34) 필자도「普天敎 十一殿과 曹溪寺 大雄殿」(2001. 『신종교연구』제4집. 한국신종교학회)에서 보천교의 핵심 건축물인 십일전의 이축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변의 신종교를 연구한 이들까지 가세해, 보천교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글들이 발표되었다. 황선명은 「잃어버린 코뮌」(2000)[35]에서 보천교의 종교 공동체 현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 풍미했던 각종 비기를 바탕으로 하는 예언이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조경달은「植民地朝鮮における 新興宗教の 展開と 民衆(上)-普天教の 抗日と 親日」(2001)[36] 에서 보천교운동은 항일과 친일로 얽혀져 있는, 그러나 동학과 연결된 사상적, 운동사적 맥락을 지녔다고 언급하였다. 필자도 「선도계열의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2002)[37]에서 보천교운동을 선도계열의 운동으로 폭넓게 규정하였다.[38]

차월곡이 타계한 1936년에 전격 해체된 보천교의 조직이나 형태는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그 잔여세력은 비밀결사적 조직체를 복원하여 기도와 예언을 통한 후천선경 신정부 건설을 도모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또다시 탄압을 받았다고 필자는 앞의 글에서 소개하였다.[39] 보천교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실력양성운동에 뛰어든 사실을 강조한 기존 그의 글과는 달리, 필자는 보천교운동의 저변에는 후천선경의 신정부 건설을 희구하는 민중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2000년대에도 보천교운동을 민족운동으로 인식하는 글들이 발표되었다. 김재영은 그의 글 「보천교의 천자등극설의 실체」(2001)[40] 에서 보천교의 천자등극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뒤이은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2007)[41]에서는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의 활동 이전까지의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시국대동단의 활동 시기나 그 이후의 시기에 보천교가 김좌진이나 의열단과 관련 있다는, 또는 내란음모 혐의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다.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2002)[42]에서 성주현도 당시의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1920년대의 보천교의 조직 활동을 민족운동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태을교'와 '보천교'는 별개의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조직이나 활동으로 기술한 점은 아쉽다.

보천교라는 이름 이전의 보천교를 선도교(仙道敎) · 태을교(太乙敎) · 흠치교(吽哆敎) · 천자교(天子敎) 등이라 하였다. 보천교는 1922년에 교단에서 표명한 이름이다. 교명이 표명되기 이전에 일제는 차월곡 일파를 선도교로, 강증산의 수제자로 통하는 김형렬(金亨烈)의 일파를 태을교로 파악하였다. 차월곡과 김형렬은 1914년까지는 강증산의 유지를 받든 종교적 형제지간이었다. 따라서 일반에서는 양자를 혼동하였고, 증산교계 신종교를 '태을교'라 통칭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는 대체로 차월곡의 일파를 태을교라고 표기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에 김형렬 일파가 차월곡 일파에 비해 그 세가 미약했고, 언론이 김형렬과 차월곡을 한 통속으로 여겼기 때문이다.[43]

보천교가 민족운동 내지는 민족종교운동을 했다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상반된 글도 발표되었다.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2002)[44] 에서 김정인은 보천교운동을 민족운동사에 편입을 시도한 윤이흠과 필자의 글을 비판하였다. 예컨대 "…보천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1920년대 전반기의 역사적

35) 황선명. 2000. 「잃어버린 코뮌」. 『신종교연구』제2집. 한국신종교학회.

36) 趙景達. 2001. 「植民地朝鮮における 新興宗教の 展開と 民衆(上)-普天教の 抗日と 親日」,『思想』2001.2. 岩波書店 ; 2001. 「植民地朝鮮における 新興宗教の 展開と 民衆(下)-普天教の 抗日と 親日」. 『思想』2001.3. 岩波書店 ; 조경달(허영란 옮김). 2009.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37) 필자. 2002. 「仙道系列의 豫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종교연구』제6집. 한국신종교학회.

38) 위의 글. 30쪽. 地上仙境 建設을 추구한 공개 이전의 보천교를 자타가 선도교라 불렀다. 1936년 이후의 보천교의 잔여 세력을 仙道라 하였다. 예컨대 "이들은 황하의 물이 인도에 도달하니 불교가 나왔고 중국에 도달하니 유가가 나왔으며, 근세에 조선에 도달하니 선도가 나올 시운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조직을 仙道로 불렀던 것이다"(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40. 『刑事事件簿』형공합 제2호)라고 하였다.

39) 위의 글.

40) 김재영. 2001. 「普天敎의 天子登極說의 實體」. 『한국종교사연구』제9집, 한국종교사학회 ; 2002. 『저항과 변혁의 땅』. 정읍문화원 ; 2010. 『보천교와 한국 신종교』. 신아출판사.

41) 김재영. 2007.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제31호. 전북사학회 ; 2002. 『저항과 변혁의 땅』. 정읍문화원. 김재영은「普天敎 本所 建築物의 行方」(2001. 『신종교연구』제5집. 한국신종교학회),「普天敎의 天子登極說의 實體」(2001. 『한국종교사연구』제9집. 한국종교사학회),「입암산과 宗敎」(2003. 『신종교연구』제8집. 한국신종교학회),「井邑農樂과 新宗敎」(2002. 『한국종교사연구』제10집. 한국종교사학회),「風水와 땅이름으로 본 井邑의 宗敎的 象徵性-普天敎를 중심으로-」(2000. 『신종교연구』제2집. 한국신종교학회),「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2007. 『전북사학』제31호. 전북사학회),「보천교의 교육활동」(2006. 『신종교연구』제14집. 한국신종교학회) 등을『보천교와 한국 신종교』(2010. 신아출판사)에 담았다.

42) 성주현. 2002.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43) 趙景達. 위의 글 ; 위의 책.

44) 김정인. 2002. 「1920년대 전반기 普天敎의 浮沈과 民族運動」.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현실 속에서 근대 종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전근대적이고 반사회적인 사교(邪敎)로 세인에게 각인된 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반민족적인 정치 활동에 의해 더욱 확산되어 갔던 특징을 갖고 있다"며, 보천교를 민족종교로 또는 민족종교운동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반면에 윤선자는 『한국근대사와 종교』(2002)[45]에서 증산계 종교 단체를 준(準)민족종교 단체로 규정한 일제는 보천교의 해산을 획책하였다고 언급하였다.

2010년대에는 학위논문 두 편이 주목을 받았다. 송형목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總督府の新宗教政策と '宗教地形'の變化 -1920年代前半における普天教の 活動を 中心に-」(2012)[46]에서 "근대의 폭력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좋은 도구로서 보천교를 설정하였다"면서, 공개 이전의 보천교의 조직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초기 교단을 고판례(高判禮)가 아닌 차월곡이 주도하였던 점, 1922년에 단행된 교단 공개를 보천교에서는 최소화 하려고 하였다는 점, 『보천교연혁사(普天敎沿革史)』는 촌산지순(村山至順)의 『朝鮮の類似宗教』집필에 제공된 자료일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 일본의 대본교(大本敎)와 보천교가 깊은 교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대본교 측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보천교연혁사』가『朝鮮の類似宗教』를 집필하는 데 제공된 자료일 것이라는 점이나, 이의 검증이 필요하다.

장원아는 그의 석사학위논문 「1920년대 보천교의 활동과 조선사회의 대응」(2013)[47]에서 1920년대에 각 세력들의 비판에 대응하며 종교·사회적인 활동을 펼친 보천교의 모습, 그리고 그 쇠퇴 과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특히 조선총독부와 《동아일보》 계열, 천도교 세력, 사회주의 세력 등이 보천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성토한 배경에는 각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그리고 당시 사회 상황의 전개에 따른 조응한 결과라고 하였다. 하지만 서론에서 그는 보천교의 활동에 대한 "…조선사회 각 세력의 대응이 내포한 역학관계 및 그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려 한다"고 하였지만 그 성격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45) 윤선자. 2002. 『한국근대사와 종교』. 국학자료원.

46) 宋炯穆. 2012.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總督府の新宗教政策と '宗教地形'の變化-1920年代前半における普天教の 活動を 中心に-」(立命館大學大學院 文學研究科 日本史學專修 碩士論文)

47) 장원아. 2013. 「1920년대 보천교의 활동과 조선사회의 대응」(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1920년대 보천교의 활동과 조선사회의 대응」. 『한국사론』제59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송형목과 장원아에 앞서 필자는 보천교가 일제의 압박에 굴복하여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을 포기하고 교단과 교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정리한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2012)[48]을 발표하였다. 앞의 글에서 필자는 보천교가 공개적으로 조직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과 함께 교명 및 교단의 공개가 교본소가 있는 정읍이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보천교의 '공개'가 갖는 의미를 언급하였다.[49]

앞서 송형목이나 필자는 보천교가 공개적인 조직운동으로 전환한 데에는 일제로부터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받으려는 일부 간부의 자발성 때문이라는 기존 관점[5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보천교 공개'는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조직의 공개 직후에 결성된 친일 성향의 '시국대동단'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3. 연구의 최대 쟁점

보천교 연구에 있어서 최대 쟁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천교운동을 민족운동으로, 또는 민족종교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이다.[51] 보천교운동을 민족운동과 연결을 시도한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윤이흠과 윤선자, 김재영, 성주현, 안후상 등이다. 이들은 대체로 보천교운동을 민족운동 또는 민족종교운동으로 이해하였다. 보천교의 항일과 친일의 역사를 제시한 조경달은 민중들의 에너지를

48) 안후상. 2012.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신종교연구』제26집. 한국신종교학회.

49) 2000년 이후 필자는 「차월곡 출생에 관한 소고」(2000. 『신종교연구』제2집. 한국신종교학회),「普天敎 十一殿과 曹溪寺 大雄殿」(2001. 『신종교연구』제4집. 한국신종교학회),「佛敎總本山 曹溪寺 創建考」(2001. 『보조사상』제15집. 보조사상연구원),「仙道系列의 豫言을 어떻게 볼 것인가」(2002. 『신종교연구』제6집. 한국신종교학회),「강증산의 사상과 보천교운동」(2007. 『식민지 시대 사회상에 비친 동학관련 신종교·민간신앙』.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2012. 『신종교연구』 제26집. 한국신종교학회),「차경석의 출생과 연기동, 보천교」(2013. 『19세기 사상의 거처-근대 민중종교운동과 고창』. 도서출판 기역),「미륵불교의 '신인동맹 사건'」(2014. 『정읍학』창간호. 정읍학연구회) 등의 글을 발표하였다.

50) 이강오. 위의 글. 13쪽 ; 김정인. 위의 글. 165쪽.

51) 윤이흠은 민족종교운동을 "후천개벽사상에 따르면 오늘의 혼돈과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바야흐로 後天의 새로운 理想社會가 도래하는 轉換點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다. 그런데 다가올 후천의 이상사회에서는 한반도가 그 중심이 되고, 한민족이 그 주역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후천개벽 사상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우주론적 신념체계 안에 열정적인 민족애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민족이 당면한 역사의 횡포에 분연히 일어선 민족적 자기 각성의 종교적 표현이었다. 우주론적 근거에서 민족적 저가각성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이름 하여 民族宗敎運動이라 하며, 그 효시가 1860년대 최제우가 일으킨 東學이다"라고 정의하였다.(윤이흠 외. 위의 책. 12쪽)

흡수, 이용한 대표적인 '신흥종교'이자 '민중종교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52] 반면에 김정인은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인은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가 근대 종교로의 개편과 민족운동 진영으로의 진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일제 당국의 일방적인 종교와 유사종교의 편 가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민족운동 진영에 의해서도 종교와 사교를 구분하는 나름의 기준-근대성과 민족성의 여부-이 제시되었으며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 보천교가 사이비종교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53] 며, "…일제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선전에 의해서만 보천교가 사이비 종교로 매도당한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전(前)근대적인 틀을 여전히 묵수(墨守)하고 반(反)민족적 행위를 일삼는 보천교는 사교이고 미신 놀음 집단에 불과했던 것이다"[54] 라고 하였다. 보천교가 민족운동 진영으로 진입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천교가 근대성과 민족성이 없기 때문이며, 근대화와 자주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55]

당시 사회의 이목을 끌며 급성장한 보천교의 종교·사회적 활동이 지닌 논리와 성격에 주목했던 장원아는 "교주 독재의 강화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일제 당국의 단속 심화로 교세는 약화되었으며, 본소 주변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해 신도들이 이반함"으로 보천교는 몰락해 갔다고 하였다. 더불어 교단 내 보수파들은 교세 유지의 전략으로 친일 성향의 시국대동단을 결성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식인들의 '보천교 박멸운동'을 불러왔다고 적시하였다.[56]

윤선자는 그의 책『한국근대사와 종교』에서 "…1921년 9월 차경석은 시국을 선포하고 천자로 등극하는 식을 거행하였다. 차경석이 천자로서 황제에 등극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종교 신앙운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첩(職帖)을 팔고 막대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넘어 세속적인 권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57] 라면서, 보천교가 3·1운동 이후에 국내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큰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58]

윤이흠도 당시의 언론이 보천교를 혹세무민하는 종교라 비판한 것은 일제의 보천교 탄압 정책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적 발전사관에 입각한 것이며, 민족종교로서 보천교는 민족종교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고 하였다.[59] 성주현과 김재영도 1920년대 초기 또는 시국대동단의 활동 직전까지는 보천교운동을 민족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60]

보천교의 항일과 친일, 민족운동 또는 민족종교운동을 한 종교인지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천교를 둘러싼 식민사회의 반응이나 태도 등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보천교의 운동사적 성격이나 의의 등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이나 민족종교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간의 다수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보천교의 반일적 성향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보천교의 반일적 성향 즉 반일성(反日性)을 통해서 당시의 지식인이나 일제가 보천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52) 趙景達. 위의 글 ; 위의 책.
53) 김정인. 위의 글. 161쪽.
54) 위의 글. 184쪽.
55) 위의 글. 183-184쪽. 위의 글에서 김정인은 80여 년 전의 사교를 구분하는 기준인 '근대성'으로써 보천교가 사교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종교의 건전성을 합리성이 바탕이 된 근대성으로써 正과 邪를 구분하듯이 가름해버린 것이다. 강돈구는 그의 책『韓國近代宗教와 民族主義』에서 "…근대 민족주의의 기점을 近代性에서 찾는 것은 예를 들어서 近代宗教에서 宗教의 近代性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강돈구,『韓國近代宗教와 民族主義』, 집문당, 1992, 36쪽) 위의 책에서 강돈구는 "…近代化 理論을 통한 민족주의 연구의 부당성의 이유로, 첫째 근대화는 민족주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둘째 민족주의는 近代化를 지향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셋째 近代化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J. Breilly,op.cit.)는 지적을 감안해서 한국의 近代史를 "…소위 近代化는 民族主義보다는 오히려 帝國主義와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39쪽) 그는 또 "…민족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近代化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宗教史나 思想史에 있어서 近代化라는 개념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였다(40-41쪽).
56) 장원아. 위의 글(석사학위논문). 79쪽.
57) 윤선자. 위의 책. 63쪽.
58) 위의 책. 63쪽.
59) 윤이흠 외. 위의 책. 70쪽.
60) 성주현. 위의 글 ; 김재영. 2007.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제31호. 전북사학회.

Ⅲ. 자료의 이용과 연구의 방향

보천교의 반일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는 일제가 양산한 자료와 당시 신문과 잡지, 그리고 보천교 측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발굴된 '판결문'은 보천교의 반일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자료로 굳어지고 있다. 본란에서는 앞의 자료들을 소개하고, 아울러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그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 등을 소개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또한 향후의 연구의 방향성을 '예시'와 함께 제시할 것이다. 앞의 예시는 보천교의 반일이 단순히 교단 보호를 위한 것인지, 또는 교단이 추구한 종교적 신념의 산물인지, 아니면 독립운동 차원의 반일인지 등을 관련 사건이나 주의주장 등을 통해서 살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제시되는 것들이다.

1. 자료의 현황과 이용상의 문제점

일제는 보천교의 조직을 붕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천교를 탄압하였고, 그 탄압의 과정에서 적잖은 자료들을 남겼다.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八-十三年』(朝鮮總督府警務局), 『太乙教徒檢擧に關する件』(朝鮮總督府警務局), 『洋村及外人事情一覽』(1924), 『管內最近狀況說明資料(全北)-普天教一般』(1926), 『朝鮮の類似宗教』(1935), 그리고「秘密結社の解剖(四)」[61] 등은 보천교의 조직 활동에 대한 일제의 우려가 담겨져 있는 보고서이다. 즉 보천교를 불온 단체로 지목하고 내밀한 감시와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인 것이다. 이외, 검찰과 경찰 측 자료와 재판 관련 자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재판 관련 자료는 온라인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에서도 볼 수 있다.[62]

온라인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에서 6개 단어[63] 로 검색한 결과는 보천교 74건, 차경석 256건, 선도교 36건, 태을교 123건, 우치교 303건, 강증산 27건 등 총 819건이다. 물론 앞의 판결문은 중첩돼 있어 그 건수는 819건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외 고판례, 차윤칠 등의 단어로 검색한 결과도 있으나, 일단 앞의 6개 단어로 검색해서 얻은 판결문은 향후 관련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64]

앞의 6개의 단어로 검색된, 그러나 중복되지 않은 321명은 적어도 경찰과 검찰이 "조선독립을 위해 선도교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을 염출하려 하였다" 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이들이다. 물론 법원에서 기각 또는 면소된 이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21명이 판결 받은 연도는 1921년이 186명, 1922년 32명 등이고, 1938년 20명, 1929년 9명, 1940년 20명 등이다.[65] 이것으로 볼 때 보천교의 반일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보천교의 '반일성'이 곧 '민족성'을 담보한 것인가하는 문제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66]

근래에 발굴된 <仙道教の 不穩計劃に 關スル 件>(江原道平康警察署)이나 원군교(元君教) 관련 <刑事裁判書原本>(全州地方檢察廳) 등도 "국권회복을 도모하던 보천교 잔여세력의 비밀조직"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당시 경찰의 상황보고서와 재판 관련 기록들이다. 앞의 자료에 나타난 사건들은 보천교운동의 소멸 시점인 1936년을 뛰어 넘는 것으로, 이러한 제 운동까지를 향후 관련 연구의 범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보천교 관련 기사는 의외로 많다. 일제 강점기의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신보》 등의 일간지와 《개벽》·《삼천리》·《조광》·《보광》 등의 월간지에는 보천교의 활동을 '미몽'이나 '사이비'로 해석할 수 있는 기사들이 상당수이다. 하지만 그 활동을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으로 해석할 수

61) 南山太郎. 1922.10.「秘密結社の解剖(四)」.『朝鮮公論』第10券 10號(通卷 第115號).

62)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참고로 온라인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user/index.do)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보천교운동과 관련한 국가유공자는 40여 명에 달한다.

63) 2014년 6월 6일에 검색한 6개의 단어는 보천교, 차경석, 선도교, 태을교, 우치교, 강증산 등이다. 앞의 우치교는 吽哆教(흠치교)의 '吽(흠)'의 음이 '우'이기 때문에 '우치교'라 했을 것이다.

64) 온라인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의 내용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 재판관 등을 의식한 피고 측, 즉 보천교인의 위증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의 판결문의 검증을 위해서 차월곡의 次男과 三男, 敎人들, 그리고 제3자 등의 증언을 가급적 활용할 생각이다. 차월곡의 아들 용남과 봉남, 봉룡 등은 당시 교인들은 일제의 조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교단의 보호를 위해 위증할 수밖에 없었다고 수시로 얘기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65) 온라인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에 나타난 연도별 관련 인물은 1918년 2명, 1919년 1명, 1920년 1명, 1921년 186명, 1922년 32명, 1923년 11명, 1924년 2명, 1925년 1명, 1926년 8명, 1927년 3명, 1938년 20명, 1939년 9명, 1940년 20명, 1942년 5명, 1943년 4명, 1944년 15명, 1945년 1명 등 모두 321명이다.

66) 참고로 근대성이 없는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한국 근대사에서 近代性이 곧 民族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민족주의는 민족을 구원할 수단으로서 문명개화를 받아들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문명개화나 근대성으로써 '민족'을 규정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오히려 당시의 근대성이 '민족'을 지워버렸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앙드레 슈미트 저(정여울 옮김). 2007.『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91쪽).

있는 기사도 적지가 않다. 예컨대 『조선일보 항일기사 색인-1920-1940-』[67]에 나타난 항일기사 건수는 보천교(태을교와 흠치교 포함) 147건, 천도교 32건, 기독교 23건, 불교 18건, 청림교 17건, 유교 15건, 천주교 2건, 기타종교 11건, 종교일반 6건 등이다.[68]

앞의 통계로만 본다면 보천교의 항일 활동은 당시의 여타 종교의 항일 활동을 능가한다. 하지만 항일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항일 기사의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보천교의 활동을 항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의식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이외 일본에서 발간된 잡지에 게재된 보천교 관련 기사도 있으며,[69] 지역에서 발간한 『정읍군지(井邑郡誌)』(1937)는 일제강점기의 보천교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료로 분류되기도 한다.

광복 이후에 보천교 교단이나 관련 각 교파에서는 교단의 재조직 또는 종교제도화를 위해 그간에 축적된 자료들을 정리, 발간하였다. 그 대표적인 저작물이 이영호(李英浩)가 1935년에 편술했다는 『보천교연혁사(상·하)』(1948)이다.[70] 『보천교연혁사』는 일제의 탄압 실상이나 내분 상황, 그리고 차월곡의 행적 등을 편년체로 기술했는데, 강증산 관련 내용이 없다.[71] 뒤에 강증산의 행적을 기술한 『교조약사(敎祖略史)』[72] 가 『보천교연혁사』와 함께 영인되기도 하였다. 앞서 송형목이 언급한 것처럼 『보천교연혁사』가『朝鮮の類似宗教』의 초안으로 제공되었다면, 이는 일제를 의식한 교단사일 수 있으며 따라서『보천교연혁사』가 갖는 사료적 의의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73]

보천교는 손병희(孫秉熙)의 천도교와 함께 '동학계'로 분류되기도 한다.[74] 손병희와 차월곡 모두는 동학농민전쟁에 뛰어든 동학도였다. 1898년과 1899년의 일명 '영학당(英學黨) 사건' 또는 '무술기해 농민봉기'에서 차월곡은 농민군 측의 '거괴(巨魁)'였다.[75] 이후의 차월곡은 동학의 전국 조직인 진보회의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일진회의 전라도 순회관 또는 총대라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76] 1920년대에는 천도교와 경쟁하듯 조직운동을 전개한 보천교가 천도교의 《개벽》과 유사한 《보광》(1923)을 발간하였다. 이 전인 1922년에는 《보천교보》(1922)를 발간하기도 하였다.[77]

1924년에는 보천교의 신진지식인으로 분류되는 이상호(李祥昊)와 이정립(李正立)이 일간지 《시대일보》의 인수(1924)를 주도하였다.[78] 보천교가 《시대일보》를 인수할 무렵에 지식인들은 보천교를 성토하고, 성토대회가 확산되면서 보천교는 내분에 휩싸였다.[79] 내분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상호와 이정립은 보천교에서 이탈한 후에 독자적인 신행 활동을 하면서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

67) 안병훈 편. 1986. 『조선일보 항일기사 색인 -1920-1940-』. 조선일보사. 552-555쪽.

68) 안후상. 1998. 「普天敎와 物産奬勵運動」. 『한국민족운동연구』제19집.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편. 위의 책.

69) 대표적인 잡지가 앞서 언급했던 南山太郎의 위의 글이다.

70) 『普天敎沿革史(上·下)』의 편술자가 이영호라는 것은 보천교단에서 발행한『道訓』339쪽에 나온다. 『普天敎沿革史(上·下)』는 1948년에 발간한 교단사로, 1958년에 '續篇'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보천교연혁사』를『普天敎沿革史(上·下)』(1948. 普天敎中央總正院·協正院總領院)와『普天敎沿革史(續)』(1959. 普天敎中央總正院·協正院總領院)로 구분을 한다. 앞의『普天敎沿革史(上·下)』는 1909년부터 1934년까지의 교단사이며, 뒤의『普天敎沿革史(續)』는 1935년부터 1936년까지의 교단사이다. 『普天敎沿革史(續)』의 발간의 취지나 발간의 과정은 李英浩가 쓴 <跋>에 자세히 언급돼 있다.(1958. 『普天敎沿革史(續)』. 普天敎中央總正院·協正院總領院. 13-15쪽) 차월곡의 親子 龍南은 "『普天敎沿革史(上·下)』는 차월곡의 지시로 1930년대에 기술된 교단사이며,『普天敎沿革史(續)』는 차월곡 타계 이후에 간부 李英浩가 추가로 기술한 교단사이다. 1930년대에 이의 간행을 시도하다가 일제의 검열에 따른 위기감으로 내용 일부가 수정, 삭제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1948년에『普天敎沿革史(上·下)』를, 1958년에『普天敎沿革史(續)』를 출간하였다"고 하였다(1994년 2월 13일. 차용남의 집에서).

71) 1920년 전후해서 보천교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1926년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과 그에 따른 내분이 본격 시작되었다. 특히 간부 李祥昊, 李正立의 黜敎를 시점으로 강증산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敎體나 神行 등이 약간씩 바뀌어, 1928년경에는 改新儒敎로의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신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72)『敎祖略史』는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보천교구파'에서 발간하였다.

73) 宋炯穆. 위의 글.

74) 天道敎中央總部敎史編纂委員會 編. 1981. 『天道敎百年略史(上)』. 미래문화사. 350쪽. 위의 책에는 차경석을 진보회 두령이라 적시하였다.

75)「全羅南道高敞郡兢捉亂黨口招同類姓居住竝錄成册」(1899)

76) 李敦化 編. 1933. 『天道敎創建史』. 天道敎中央宗理院. 45-48쪽 ; 李祥昊. 1926. 『甑山天師公事記』. 相生社. 70쪽. 참고로 "1906년경에 일진회에서 이탈한 차월곡이 강증산을 만났다"는 기록도 있다.(李祥昊. 1987. 『大順典經』10판. 증산교본부. 109-111쪽 ; 114-115쪽)

77) 《普天敎報》와 《普光》 모두는 신진지식인으로 분류되는 간부 李正立이 창간하였다.

78) 본 연구에서는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보천교의 신진지식인도 서구 교육을 받은, 또는 그 영향을 받은 지식인을 가리킨다.

79) 보천교 박멸운동의 주요 배경은 기존 연구에서는 보천교가 어용단체 시국대동단을 조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시대일보》 인수 과정에서 이미 도시지식인들은 '보천교 성토위원회'를 결성하였다('보천교 성토 연설' 《동아일보》 1924.8.11. ; '보천교 성토위원회', 《동아일보》 1924.8.22).

記)』(1926)를 펴냈다. 강증산의 언행을 기록한 『증산천사공사기』는 수차례의 보완을 거쳐 간행되니 바로 『대순전경(大巡典經)』이다.

『대순전경』은 이정립이 쓴 『증산교사(甑山敎史)』와 함께 보천교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80] 그런데 앞의 자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서술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보천교 본소가 있는 정읍 대흥리 주변의 전언이나 다양한 부류 사람들의 구술, 그리고 일제 측 자료나 당시의 신문, 잡지 등과 비교(比較)하고 교직(交織)시켜 보는 방법으로 교단 측 자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교단 측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만 있다면 보천교운동에 참여한 그들의 언어로써 그들의 생각을 추적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2. '예시'를 통해서 본 연구의 방향성

보천교의 반일이 단순히 교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교단이 추구한 종교적 신념의 산물인지, 아니면 독립운동 차원의 반일인지 등을 관련 사건이나 주의 · 주장 등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것이 씨줄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 과제는 향후의 관련 연구에 있어서 날줄이라 할 수 있겠다. 첫째 일제가 보천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불경스러움'과 함께 제시한 명분이 '미신사교'다. 문명개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보천교를 미신사교라며 압박한 일제의 행위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당시에 문명개화를 신성시했던 지식인들과 보천교 간의 간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지식인들이 문명개화를 앞세워 보천교 박멸운동에 나섰던 사정 또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두 가지 과제를 통해서 근대성(近代性)이 보천교의 반일성(反日性)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관련 연구는 크게 <보천교의 '반일'과 일제의 탄압(1914~1922년)>, <보천교의 사회 진출과 보천교 박멸운동(1922~1924년)>, <천자등극설과 일제의 보천교 해체(1924~1936년)>, <보천교계 신종교의 반일운동(1936~1941년)>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앞의 구성은 시대 순으로 하되 연구의 대상이나 그 대상이 갖는 성격에 따라서 배열해 본 예시이다.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주관성이 강한 예시에는 향후의 관련 연구에 있어서 참신한 착안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포함돼 있다.

앞의 예시를 통해서 관련 사건이나 관련 인물들의 성향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더욱이 보천교의 반일성을 재론할 수도 있다. 예컨대 보천교의 목적이나 노선 등이 식민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인가를 당시의 판결문이나 일제의 기록, 그리고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보천교의 반일성이 민족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향후 연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일제나 당시의 지식인들의 문명개화론이나 사이비종교론 등이 보천교의 반일성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이 또한 앞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보천교의 '반일'과 일제의 탄압(1914~1922년)>에서는 보천교의 성립(1914년)과 수난, 24방주제(1916년)와 60방주제(1919년), '제주법정사 항일항쟁'과 보천교(1918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 1920년대 초반의 '신정부 건설론'의 유포(1921년)와 민중의 결집, '청송 사건'(1920년)과 '김홍규 사건'(1921년), 국호의 선포와 황석산 고천제(1921년 음9월), 보천교의 공개(1922년 음2월), '고흥교도 피살사건'(1922년)과 보천교 등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보천교의 사회 진출과 보천교 박멸운동(1922~1924년)>에서는 보천교와 사회주의운동(1922), 보천교와 워싱턴회의(1922), 보천교와 김좌진(1922), 보천교와 국민대표회의(1923), 보천교와 의열단(1923), 보천교와 실력양성운동(1923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때 보천교의 신진지식인으로 분류된 주익 · 고

80) 이외에도 교단 측 자료로는 李重盛의『天地開闢經』이나『二師全書』,『普天敎』,『時鑑』,『普天敎誌』,『時正』,『禮記撮要』,『執贊訓辭』,『內正院沿革史』,『大道指南』,『道訓』,『由章錄』등이 있다. 교단에서 발간한 자료는 발간 주체나 편자에 따라 그 내용이나 성격이 약간씩 다르다. 이강오는 그의 글「普天敎」에서 자료의 '소유'를 기준으로 교단 측 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보천교 구파에서 소유한 자료는『二師傳書(二師大經)』(李永浩 編. 1948. 中央典文司),『大道略解』(鄭永喆 編. 1951. 中央典文司),『敎誌』(鄭鳳陽具相書 外 編. 1964),『敎理綱領敎訓集錄』(鄭永喆 編. 1966) 등이다. 신파에서 소유한 자료는『時正』(鄭東燦 編. 1955),『仁義』(鄭東燦 編. 1955),『敎訓』(鄭永喆 編. 1951. 中央典文司),『敎鑑』(洪澤根 編. 1936) 등이다. 산구파 모두가 소유한 자료는『大道指南』(任容淳 編. 1953),『二師全書』(金洪奎 編. 1946. 中央總正院),『敎祖略史』(李永浩 編. 1935),『普天敎沿革史(上·下)』(李永浩 編. 1948. 普天敎中央總正院協正院總領院),『普天敎沿革史(續)』(普天敎中央總正院協正院總領院. 1958),『琴譜』(金應河 編),『敎畧』(李永浩 編) 등이다. 이강오의「普天敎」에는 없는 자료로는『普天敎』,『時鑑』,『普天敎誌』,『禮記撮要』,『執贊訓辭』,『內正院沿革史』,『道訓』,『由章錄』등이 있다. 참고로 보천교가 산구로 갈라서게 된 시기는 1962년이다.

용환 · 임규 · 배치문 · 조만식 · 박자혜 등의 행적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보천교의 시대일보사 인수(1924.6)와 보천교 박멸운동(1924.8)이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그리고 당시 천도교 세력이나 언론계, 사회주의 세력 등이 보천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들이다.

<천자등극설과 일제의 보천교 해체(1924~1936년)>에서는 갑자등극설(1924년), 중앙본소 및 십일전의 건축(1925년), '정의부 권총단 사건'(1925년)과 보천교, 기사등극설(1929년)과 '천자검 사건'(1929년) 등으로 예민해진 일제의 보천교 탄압 논리나 보천교 해체 시도(1930-1935)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잡지에 나타난 지식인들의 문명개화론과 보천교의 반일성 간의 간극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보천교계 신종교의 반일운동(1936~1941년)>에서는 1930년대 말과 1940년대의 원군교 · 미륵불교 · 선교 · 삼산교 · 황극교 등의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의 사례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선도교(仙道敎)의 일망예언(日亡預言)(1935년), 원군교(元君敎)의 멸왜집회(滅倭集會)(1941년), 신인동맹(神人同盟)의 일망무지(日亡無地)(1941년) 등을 통해서 보천교의 반일성,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반일성이 부정되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나오는 말

본고는 보천교 특히 보천교의 반일성을 연구하기 위한 시론에 가까운 연구사이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보천교는 기본적으로 반일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보천교의 민족성에 의구심을 피력한 글이 없지 않으나, 보천교의 반일성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앞의 연구사에서 얻은 결론이다. 보천교의 반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본고로서는 '보천교의 반일성 연구'를 지향하며 그것의 논증을 위한 서설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본고의 지향점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본고는 '보천교' 또는 '보천교의 반일성'과 관련한 연구사를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사실 본고의 연구사는 '보천교 연구의 현황'의 다른 이름이다. 1998년에 필자의 「보천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가 발표된 지 만 18년 만의 정리로, 그 간에 보천교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괄목할 만한게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18년 전보다 관련 연구의 양이 늘었지만,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은 계속 요구될 전망이다. 18년 전의 「보천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 밝힌 객관적 연구나 운동의 성격 규명, 연구 방법론의 다각화, 운동의 범위 설정 등의 과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식민성과 민족성, 근대성과 전근대성, 고등종교론과 사이비종교론 등 최근 담론에 기댄 해석이나 문화사적 접근 등은 없었다. 그렇다고 사회사나 역사주의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보천교운동에 참여했던 그들의 언어로써 그들의 생각을 추적하는 작업은 관련 연구의 진중함을 더하는 요소로서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교단 측 자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보천교 본소가 있는 대흥리 주변의 전언이나 다양한 부류 사람들의 구술, 그리고 일제 측 자료나 당시의 신문, 잡지 등과 비교(比較)하고 교직(交織)시켜 보는 방법으로 교단 측 자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관련 연구의 쟁점을 거론하면서 보천교의 반일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또는 그것들이 갖는 한계를 거론하였다. 특히 보천교의 반일성이 곧 민족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과도 맞물리면서 관련 연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였다.

후반부에서는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보천교의 반일성을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을 시대 순으로 구성하면서 그 특징들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사건들을 나열하였다. 이러한 예시에는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 참신한 착안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식민지 한국은 '전통'과 '문명'이라는 명분이 혼재돼 있었다. 당시의 전통이란 왕조시대에 지키고자 한 '정(正)'보다는 배척하고자 한 '사(邪)'에 가까웠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언론에서는 문명의 저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천교를 계몽의 대상이라 하였지만, 당시에 적지 않은 민중은 보

천교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계몽의 대상으로 지목된 그들, 즉 민중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관련 연구는 보천교운동에 참여한 그들의 언어로써 그들의 생각을 추적하는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bstract

A Historical Review for the Study of the Anti-Japanese Attitude of Poch'ŏn'gyo

An Hu Sang
A member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This paper is a review and histor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study of the anti-Japanese attitude of Poch'ŏn'gyo'. Poch'ŏn'gyo had an anti-Japanese attitud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it was disbanded as part of systematic repression. What made Japan repress Poch'ŏn'gyo? Was it considered to be a cult, or did it pose a threat to Japanese colonial rule? Many records exist during the repression of Poch'ŏn'gyo which clearly stated, "Poch'ŏn'gyo gathered funds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This research reviewed the status of the study of Poch'ŏn'gyo before and after the year 2000. Most research remarked on the anti-Japanese attitude of Poch'ŏn'gyo, and even its ethnicity. However, some recently announced papers denied Poch'ŏn'gyo's ethnicity. So, the biggest issue on the research of Poch'ŏn'gyo concerns how to look at the ethnicity of it. There is no debate about 'the anti-Japanese attitude of Poch'ŏn'gyo'. Related research from both time periods, as well as many materials left behind by Japan, indicated the anti-Japanese attitude of Poch'ŏn'gyo.

The latter half of the paper explores th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with examples given. Especially, the events related to its anti-Japanese attitude were introduced in chronological order with detailed analysis. I, in the paper, express that these examples would inspire future research.

One hundred years ago, 'tradition' and 'civilization'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was in a state of flux. The tradition at that time was closer to excluding the period of dynasty, rather than to keeping it. The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journals considered Poch'ŏn'gyo as an object to be illuminated, but many people had interest in the Poch'ŏn'gyo movement. The people under Japanese occupation, who were treated as the objects to be illuminated, would have thought in a different way than people of today think. I hope further research will shed light upon this thought through the language of the participants of the Poch'ŏn'gyo movement.

Keywords: Poch'ŏn'gyo, Sŏndogyo, Kang Chūngsan, Ch'a Wŏlgok, paradise on earth, flowing of civilization, Imperialism of Japan, Poch'ŏn'gyo's ethnicity, anti-Japanese attitude, historical review

논문투고일: 2015.12.07 심사종료일: 2016.01.08. 게재확정일: 2016.01.12.

참고문헌

강만길. 2007.『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비.

강돈구. 1992.『韓國近代宗敎와 民族主義』. 집문당.

김재영. 2010.『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 신아출판사.

김재영. 2001.「普天敎 本所 建築物의 行方」.『신종교연구』제5집. 한국신종교학회.

_____. 2001.「普天敎의 天子登極說의 實體」.『한국종교사연구』제9집. 한국종교사학회.

_____. 2000.「風水와 땅이름으로 본 井邑의 宗敎的 象徵性-普天敎를 중심으로-」.『신종교연구』제2집. 한국신종교학회.

_____. 2002.「井邑農樂과 新宗敎」.『한국종교사연구』제10집. 한국종교사학회.

_____. 2003.「입암산과 宗敎」.『신종교연구』제8집. 한국신종교학회.

_____. 2006.「보천교의 교육활동」.『신종교연구』제14집. 한국신종교학회.

_____. 2007.「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전북사학』제31호. 전북사학회.

김정인. 2009.『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_____. 2002.「1920년대 전반기 普天敎의 浮沈과 民族運動」.『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김 탁. 1988.「宗敎的 豫言은 실현될 것인가-증산교를 중심으로-」.『정문연대학원논문집』제1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국학대학원.

김홍철. 1988.「日帝下 甑山敎의 民族運動에 관한 연구」.『증산사상연구』제14집. 증산사상연구회.

김용곤. 1989.「新興宗敎 聚落에 관한 연구-普天敎 發祥地 大興 마을을 중심으로-」(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길명. 1984.「日帝下의 甑山敎運動-보천교를 중심으로 한 서설적 연구」.『崇山朴吉眞博士古稀記念論集 韓國近代宗敎思想史』. 원광대출판국.

백원철·안후상 외. 2013.『19세기 사상의 거처-근대 민중종교운동과 고창』. 도서출판 기역.

성주현. 2002.「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안병훈 편. 1986.『조선일보항일기사색인 -1920-1940-』. 조선일보사.

이강오. 1966.「普天敎」.『全北大學校論文集』제8집. 전북대학교.
윤이흠 외. 1997.『日帝의 韓國 民族宗敎 抹殺策-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고려한림원.
윤선자. 2002.『한국근대사와 종교』. 국학자료원.
안후상. 1992.「普天敎運動 硏究」(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1992.「日帝下 普天敎運動-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상).『남민』제4집. 서해문집.
_____. 1995.「日帝下 普天敎運動-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하).『남민』제5집. 서해문집.
_____. 1996.「濟州 法井寺 항일항쟁 연구」.『종교학연구』제15집. 서울대종교학연구회.
_____. 1998.「普天敎 硏究의 現況과 課題」.『한국종교사연구』제6집. 한국종교사학회.
_____. 1998.「普天敎와 東學」.『황토현』창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_____. 1998.「普天敎와 物産奬勵運動」.『한국민족운동연구』제19집.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_____. 2000.「차월곡 출생에 관한 소고」.『신종교연구』제2집. 한국신종교학회.
_____. 2001.「普天敎 十一殿과 曹溪寺 大雄殿」.『신종교연구』제4집. 한국신종교학회.
_____. 2001.「佛敎總本山 曹溪寺 創建考」.『보조사상』제15집. 보조사상연구원.
_____. 2002.「仙道系列의 豫言을 어떻게 볼 것인가」.『신종교연구』제6집. 한국신종교학회.
_____. 2007.「강증산의 사상과 보천교운동」.『식민지 시대 사회상에 비친 동학관련 신종교 · 민간신앙』.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_____. 2012.「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 와 공개 배경」.『신종교연구』 제26집. 한국신종교학회.
_____. 2013.「차경석의 출생과 연기동, 보천교」.『19세기 사상의 거처』. 도서출판 기역.
_____. 2014.「미륵불교의 '신인동맹 사건' 」.『정읍학』창간호. 정읍학연구회.
장원아. 2013.「1920년대 보천교의 활동과 조선사회의 대응」(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3.「1920년대 보천교의 활동과 조선사회의 대응」.『한국사론』제59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조경달(허영란 옮김). 2009.『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천도교중앙총부교사편찬위원회 편. 1981.『天道敎百年略史(上)』. 미래문화사.
홍범초. 1985.「普天敎 初期 敎團의 布敎에 관한 연구」.『韓國宗敎』제10집. 원광대종교문제연구소.
황선명. 2000.「잃어버린 코뮌」,『신종교연구』제2집, 한국신종교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편. 1998.『한국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趙景達. 2001.「植民地朝鮮における新興宗敎の展開と民衆(上)-普天敎の抗日と親日」.『思想』2001.2. 岩波書店. 東京.
_____. 2001.「植民地朝鮮における新興宗敎の展開と民衆(下)-普天敎の抗日と親日」.『思想』2001.3. 岩波書店. 東京.
宋炯穆. 2012.「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總督府の新宗敎政策と '宗敎地形' の變化-1920年代前半における普天敎の 活動を 中心に-」. (立命館大學大學院 文學硏究科 日本史學專修 碩士論文)